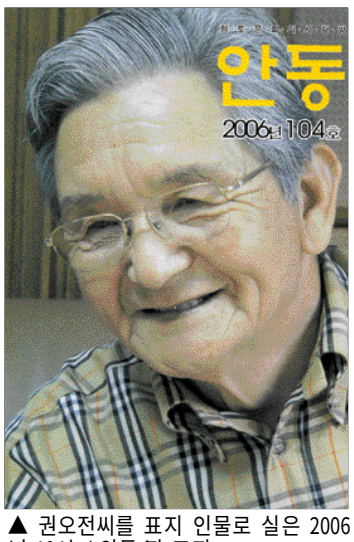
58년간 연속 일기쓰기의 세계기록

안동 도계촌의 77세 權五銓씨



▲ 권오전씨를 표지 인물로 실은 2006년 104호 '안동 지 표지

10여년 전 1999년 11월 1일자 본지 11호 14면에 우리는 '46년간 일기를 쓰고 있는 권오전權五銓씨, 기네스북의 세계기록에도 10여년 이상 초과'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일기왕' 권오전씨에 대한 기사를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그 권오전씨가 이제 77세가 된 노년으로 아직도 일기를 계속 쓰고 있어 당시 46년이던 연속 기록이 58년으로 연장되면서 언제 그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계기록을 까마득히 앞서나가고 있다. 기네스북의 공인 조건은 연속해서 단 하루라도 무슨 일로 일기를 빠뜨려서는 안되고 또 나중에 조작해서 끼워 넣어도 안된다. 그리고 진위를 검증하는 데는 필자가 거주한 지방의 기상대 일지 등과 대조하는 일까지 거치게 된다.

해병 준위로 전역한 권오전씨는 1934년 5월 9일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道村里 도계촌에서 출생한 복야공파 판서공·야옹공계 35세손이다. 시조후 22세 연어정鳶魚亭 선무랑공宣務郎公 오晤(1555~1638)의 13대 주손胄孫계이다. 17세에 1950년 동란을 맞은 그는 안동농림고등학교 재학중인 1952년 1월 4일에 19세로 학도병으로 지원하여 해병 제3기생으로 진해鎭海의 해병교육단에 입대하고 3개월의 호된 훈련 끝에 경기 동두천東豆川에 있는 해병

▲ 책장에 가득 꽂힌 권오전씨의 일기

전투단 2대대 1중대에 배속되어 실전에 투입되었다. 1년여의 피비린 전투복무를 끝내고 53년 7월 휴전이 되자 전방근무를 마친 그는 사병에서 준위准尉로 임관되어 해병교육단으로 전출되었다.

그러면서도 안동농림학교는 53년 2월 8일자로 졸업하고 그 후 15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는 1967년 3월 1일자로 전역했다. 이러한 오전씨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20세가 되던 1953년 1월 1일부터이고 이로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동기는 사람의 두뇌가 많은 양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기억보다는 기록으로 남겨야 정확하고 오래 전할 수 있으며 또 나중에 자서전을 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전역 후 고향에 정착해서는 향토예비군 중대장직을 20년 동안 수행하고 대통령포장 1회, 표창 1회, 기타 공로표창 8회를 받았으며 1994년 7월 27일 미국의 한국전 휴전 44회 기념일을 맞아서는 미국 워싱턴에 세우는 미군 참전용사기념비 제막식에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미 참석했다. 이 제막식은 미국회의상당 앞에서 한국전 참전 16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열린 것이었다.

대개 이상이 당시 보도 내용의 요지였다.

안동에서는 '안동사람의 삶과 생각을 담는 책'으로서 '향토문화의 사랑방 안동'이라는 정기간행물을 '문화모임 안동'에서 발행하고 있다. 그 정기간행물 '안동'의 2006년 5·6월호, 통권 104호 표지사진으로 권오전씨가 실리고 본문에 특집 머릿기사로 '일기장과 함께 살아온 권오전 할아버지의 50년 세월'이 실렸다. 여러 사진 자료와 함께 8면이 할애된 기사였다. 그 기사의 중간제목들만 열거해 보아도 '반세기를 일기와 함께한 권오전 할아버지·세계 기네스 감이지만 공식 등록절차 힘들어·떠꺼머리 시절 선생님 칭찬에 쓰기 시작한 일기·귀신잡는 해병 시절에도, 굴곡 많은 세월에도 놓지 않았던 일기장·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일기장만 들춰보면 돼·정보문서로 오인, 비행기 탑승전 조사받기도·책장 속 낡은 50년 전의 일기장, 삶의 반추·내 삶의 기록, 옹골차게 정리해서 남기고파' 등으로 그 대강의 내용을 짐작케 한다.

그 기사의 사진설명을 일별해보아도, 우선 표지 사진설명이 '5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써오신 권오전 할아버지(73세). 그의 빛바랜 일기장에는 수많은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목숨처럼 귀한 보물 1호를 사랑방 손님에게 고이 내보인 권오전 할아버지의 반세기 이야기를 이번호 이웃이야기에 담아보았다'이고 본문 사진에는 '1년에 한 권씩, 달력으로 포장한 일기장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다'·'1959년도의 일기장. 할아버지는 그해 결혼을 했다. 꼼꼼하게 싼 달력 포장지를 뜯어내자 역사가 쏟아져 나온다'·'옛 일기를 읽으며 감회에 젖는 할아버지'·'훤칠한 키에 이국적인 용모 때문에 젊어서부터 영국신사로 불린 권오전 할아버지. 일상생활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것이 천상 군인의 모습이다'·'허투루 살지 않게 다잡아준 내 삶의 기록, 가꿔온만큼 잘 보관하고 싶어'등등의 해설이 사진 밑에 달려 있다.

'안동 지'의 기사는 당시 이미홍이라는 객원기자가 탐방취재를 한 것인데 기자는 기사의 머리에서 '일기란 본시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공개하는 데 뜻을 두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에 대한 적나라하고도 연속적인 기록으로 개인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 간혹 자서전이나 문집을 발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책에는 아무래도 자기과시나 겉멋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기는 애초 쓸 때에 철저하게 자기자신을 향한 독백이기에 그 진실성 면에서 앞서고 꾸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흥미롭다. 때로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면도 있지만 세심한 관찰과 솔직한 어투로 쓴 진솔한 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권오전 할아버지의 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권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을 때 나는 두 가지 면에 놀랐다. 우선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한 정자로 채운 그 양에 놀랐고 그 내용의 세심함에 다시한번 놀랐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권오전씨는 2001년에 기네스사에 편지를 보내 등재 가능성 여부를 문의했다. 좀체 답이 오지 않아 조카를 통해 알아보니 한국의 기네스 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철수하고 없었다. 스위스 본사의 담당자와 연결되어 알아보니 일기쓰기 기록 보유자는 36년 계속 써온 독일인인데 고인이 되었다 했다. 그래서 확인만 가능하면 권오전씨의 등재에 문제가 없는데 절차가 쉽지 않았다.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의뢰인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경비가 여간 아니었다.

기네스 지부가 철수하기 전 1997년에 권오전씨보다 먼저 신청하여 한국 기네스지부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97년 당시 45년 일기를 써온 사람인데 1938년생 박래욱朴來旭이라는 인물이었다. 박래욱씨는 2003년에 일기를 책으로 엮어 출판까지 했으나 어떤 이유인지 한국 기네스사가 문을 닫은 후 기네스 본사의 인증서를 받지는 못했다. 권오전씨보다 4년 뒤에 출생한 박래욱이란 사람은 그후 계속 일기를 쓰고 있다면 권오전씨와 서로의 연조 기록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오전씨의 일기는 1년치가 한 권씩 책으로 매여 책장에 차곡차곡 보존되고 있다. 195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것이 제1권인데 사실 그가 일기를 쓰게 된 것은 안동농림고교에 다닐 때부터였다. 겨울방학 숙제로 일기를 써오라 했는데 그 숙제 일기에 그림도 삽화처럼 한쪽에 그려 넣었다. 손님이 와 차를 끓인 날은 풍로에 주전자를 올려놓은 그림을 그려 넣고 농사 일을 거든 날은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 모습을, 안동에서 영주 통로로 가는 미군이 많이 지나간 날은 지프차 따위도 그려 넣고 한 것을 제출했더니 담임선생이 칭찬하며 그림에 소질이 있으니 미술 선생을 찾아가보라 하였다. 미술선생이 보고 칭찬하며 당시 미신타파迷信打破를 주제로 하던 포스터를 그려보라 했다. 선생이 잡아준 구도가 미신이라 쓴 나무 밑둥을 도끼로 찍는 것이었는데 며칠을 걸려 완성해 가지고 갔더니 이를 학교 복도에 걸어 놓고 모두 보게 하였다. 미술을 하든 글을 쓰든 소질을 살려나가야겠는데 형편이 미술을 계속할 도리는 없어 글쓰기로서 돈이 안드는 일기를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5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일기를 시작했는데 전시로서 군복무중이었다. 일기장을 사서 시간이 나면 쓰고 보초를 서거나 훈련에 나갈 때도 쓰다보니 군생활과 함께 규칙적이 되어 이로부터 몸에 배게 되었다.

6·25가 터져 인민군이 안동에도 들어왔을 때 그의 부친은, 위로 그의 두 형이 국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다. 인민군이 그쪽에 협력하면 살려준다 해서 부친은 방편으로 면의 인민위원장이 되었다. 수복이 되자 부친은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가 뭇매를 맞았다. 부친의 몰매맞는 모습을 보고 통천의 분원을 품은 그는 학도병으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가 첫 휴가를 나와서는 부친을 모질게 구타한 자를 찾아가 설욕했다. 그가 소년에 자원입대하여 '귀신잡는 해병'이 되었던 것은 동기가 부친에 대한 복수였던 셈이다.

오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농촌인 도계촌에서 안동시내로 나와 살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교사이던 부인의 근무지가 안동시내이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일기는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썼다. 급환으로 입원을 하면서도 부인을 닦달해 일기장을 챙기게 하고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서도 부인으로 하여금 일기장을 펼쳐대게 하여 '입원'이라 두 글자만 써놓으면서도 기어코 일기를 거르지를 않았다. 집안에 상을 당해서도 그렇고 여행을 갈 때에도 일기장을 먼저 챙긴다.

1995년 미국 워싱턴에서 6·25전쟁 휴전 기념일에 참전용사비를 세워 제막식을 하는데 한국에서 100인을 초청했다. 그때 권오전씨는 경북 대표의 1인으로 참가했는데 일본을 경유해 가게 되었다. 경유지에서 일기장 가방을 들고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려니 그 가방을 조사하면서 일기장이 정보문서로 오인되어 지체된 일도 있었다. 그가 일기를 쓰는 데 들이는 시간은 대게 하루 30분 정도라 한다. 그러한 그의 일기에는 모두가 실명인물인 누구를 나쁘게 쓴 경우도 있고 세상에 대한 개탄과 불평도 있으며 대통령을 욕한 내용도 있다. 일기는 공개를 전제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년 전의 권오전씨는 향토문화의 사랑방 '안동 지'에 실린 그곳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고 있다.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이거 뭐 사진이고 일기고 다 불태워버릴 거란 말아야. 그래 내 한국 국학진흥원에 이야기

7면으로 계속

▲ 권오전씨의 일기(1999년 5월 9일자)